



2021년 10월 24일(제1058호) 연중 제30주일 민족들의 복음화 위헌 미사(전교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선교(宣敎)”

전교 주일을 맞아 여러분께 감히 세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첫째, 전교, 선교가 무엇인가요? 성당 다니자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례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일까요? 둘째,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선교사, 수녀, 신부가 하는 것일까요? 셋째,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외치는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소리쳐야 할까요? 아니면 사이버 신천지 사람들처럼 친근감으로 위장하여 교묘히 그 사람을 포섭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픈 ‘선교’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을 나누주는 것’입니다. 고로 선교의 임무를 지닌 사람은 예수님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며, 선교의 방법은 언행으로 복음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누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것들인 희망, 사랑, 평화, 위로 등을 나누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나눠주고, 사랑이 부족한 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눠주고, 평화를 갈망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나눠주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선교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간직한 이의 표정이 매우 밝듯이, 예수님을 간직한 이의 모습을 드러내 보세요. 어찌면

같은 부대 전우, 이웃 군인 가족, 냉담 중인 친지들에게 성당 다니자고 백번 얘기하는 것은 서로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성당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지니게끔 하는 삶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을 나누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선교의 목적 또한 ‘교회의 숫자 불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찌면 선교한다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 풍요롭기에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풍요롭게 부풀리는 것이겠지요.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나 자신과 내가 만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간직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청하였으면 합니다.

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피곤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마 10,14-15)



남동우(요한보스코) 신부
태릉(28사단) 성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환호송

- 이사 2,1-5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로마 10,9-18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 마태 28,16-20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한 번째 시한

그러나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처해 있던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를 주목하고 인식한다면, 어김없이 그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부님들은 확실히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었고, 또 탈출하기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박해와 굶주림에 억눌려 있었고, 그들은 거의 모두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면서 사방에서 체포되어 몰살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인들과 포졸들까지도 신자들을 동정할 정도였습니다.

신부님들은 모두 신자들을 위해서 계셨고, 또 신자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가 신부님들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신자들의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열성적으로 돌보셨습니다. 또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보호하려고 힘껏 애썼습니다. 신자들은 가능한 한 신부님들을 숨겨 두려 하였고 신부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까지 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자진하여 포졸들에게로 가셨고, 또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한사코 만류하지는 않았으며, 어떤 신자들은 포졸들이 오기 전에 앞질러 떠나가기도 하였음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달리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지도 좁은 왕국에서 조정은 신부님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였고, 주교님은 신부님들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시어 신부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포졸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고, 그들은 신부님들을 수색하면서 이미 문턱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주교님은 불가피한 사정에 몰려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님들을 최후의 형장에 속히 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신부님들은 주교님의 명령에 순명하였고, 또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잠시 동안은 탈출할 수 있었겠지만, 당신들이 구하려고 온 자기 양들을 위하여 많은 환난을 무릅쓰고 죽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판단으로는 그것은 과오가 아니라 덕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신부님들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졸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신부님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인 유다스에 의해서 넘겨졌고, 신부님들은 그들의 제자인 신자에 의하여 넘겨졌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가자, 세상으로

잔치는
끝이 났다.

우리의 사랑에게로
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야 할
때입니다.



상화이야기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6세기경 제작, 이블리나르 누오보 성당 / 이탈리아 라벤나

6세기에 제작된 것이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화려하며, 동시에 생생한 표현으로 아직도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상단의 예수님의 생애 장면에서 예수님은 수염 없이 매우 젊은 청년으로 그려져 있고, 황제의 색으로도 불리는 보라색 의복을 입고 계시며, 제자들은 흰색 겹옷을 입고 있다. 반대편인 오른쪽 회랑에는 예수님의 수난이 그려져 있다.



이 성당은 6세기 초반경 테오도르 황제가 그리스도교로 건축했으나, 6세기 후반경 동방 정교회가 본 지역을 정복하는 바람에, 성당 내부의 모자이크화도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성당의 왼쪽 회랑인데, 최상단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각종 기적(병자의 치유, 가나의 혼인 잔치 등)과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내용이, 중앙에는 16명의 예언자와 성인들, 하단에는 22명의 동정 성녀들이 그려져 있다.

이 부분은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준다. 왼쪽의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올리고 있고, 오른쪽에 물에서 이들을 부르시는 젊은 예수님이 보인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흥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0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백미대 이효인 신부

◆ 교구장 동정

- 해사 / 진해해군 / 해군교육사 / 충무 성당 신부 방문
 때: 10월 26일(화)
- 신선대 / 하상바오로 / 해성대 성당 신부 방문
 때: 10월 27일(수)

◆ 군중교구 사무직원 모집

- 자격 : 영상 촬영 및 음향 기술, 영상 편집 가능자, 운전면허(1종 보통) 보유자
- 인원 : 1명
- 접수 : 10월 27일(수)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군중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슬기로운 중” - “이떻게 하는 중이 진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